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진관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현대 경쟁사회 구조를 통해 본
군상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조한진

현대 경쟁사회 구조를 통해 본
군상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김진관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학과

조한진

인 준 서

조한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나날이 치열해지는 경쟁으로 인해 개인 또는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적자생존의 논리가 팽배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매일 매일을 타인과 경쟁을 벌이며 살고 있고, 이를 마치 필수불가결한 행위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쟁은 그동안 인류가 성취해 온 경제, 사회, 문화의 급속한 발전이라는 경험적 증거에 의해 사회 구성원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종의 문제적 산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쟁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경쟁에서의 패배에 대한 두려움, 보상심리, 이기심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승자독식의 문화는 과도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 구성원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감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즉, 경제적인 풍요로움의 이면에는 자신의 이익이나 이권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내재해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립과 갈등은 마치 폭죽과 꽃가루가 흩날리는 파티장 한쪽에서 개인과 집단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거친 싸움을 벌이는 군상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경쟁 사회 속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군상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사회나 집단에서 이익을 쟁취하기 위한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유발되는 대립과 갈등 속에서, 남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현대인의 모습들을 작품 속에 표현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대립과 갈등이 서로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또 이러한 어두운 현실의 문제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태도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관찰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야기되는 수많은 대립과 갈등이 만연해 있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자화상을 상징적으로 그려내고자 하였다.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타자를 다양한 표현과 꽃가루의 상징성을 활용하여 대립하고 갈등하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작품으로 승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표현적인 측면에 있어 현실적인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고 있지만, 상징적인 표현들이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지 전달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II. 본론	3
1. 사회의 대립과 갈등	3
2. 연대와 협동으로	6
3. 작품 제작 및 설명	8
III. 결론	23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조한진, <攻城戰 I>, 145.5cm x 112.1cm, 장지에 채색, 2018
- 【작품 2】 조한진, <攻城戰 II>, 145.5cm x 112.1cm, 장지에 채색, 2018
- 【작품 3】 조한진, <攻城戰 III>, 각 116.8cm x 91.0cm, 장지에 채색, 2018
- 【작품 4】 조한진, <攻城戰 IV>, 각 116.8cm x 91.0cm, 장지에 채색, 2018
- 【작품 5】 조한진, <攻城戰 VI>, 130.3cm x 97.0cm, 장지에 채색, 2018
- 【작품 6】 조한진, <攻城戰 V>, 116.8cm x 91.0cm, 장지에 채색, 2018
- 【작품 7】 조한진, <攻城戰 VII>, 130.3cm x 97.0cm, 장지에 채색, 2018

I. 서 론

현대인은 자신과 타인 또는 자신이 소속해 있는 집단과 타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삶과 방향과 목표를 맞추며 자신만의 정체성을 갖고자 부단히 노력한다. 현대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노력을 지속하지 않으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나 집단에서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고 현실에 안주하여 더 이상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낙오자가 되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타인 또는 타 집단과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쟁은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과 상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사회라는 큰 집단 안에서 현대인은 부족한 자원이나 보다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 또는 보다 높은 지위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상호간의 경쟁을 통해 치열하게 대립하고 그 안에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된다. 많은 이슈와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현대 사회에서는 수많은 개인이나 집단들은 현재의 위치보다 더 나은 위치를 점하기 위해, 또는 타인 또는 타 집단보다 더 높은 지위와 권한을 갖기 위해 대립하고 갈등한다. 복잡하고 삭막한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꿈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언제 끝이 날지도 모르는 무한 경쟁에 뛰어드는 현대인들은 이러한 과잉경쟁 속에서 발생하는 무수히 많은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자신이 현재 진정으로 행복한지 스스로 되돌아볼 여유조차 없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의 결과로 초래되는 개인적·사회적 문제는 지금의 동 시대를 살고 있는 거의 모든 현대인의 삶과 마음을 깊이 병들게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며 과연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2018년 ‘공성전(攻城戰)’이라는 제목의 석사 청구전에서 발표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대 사회구조 속에 나타나는 구성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을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다투는 개인이나 집단을 관찰하는 연구자의 시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타자들 간의 치열한 대립과 심각한 갈등을 작품 제작의 기초로 삼으면서, 이를 격렬한 몸싸움으로 표현하는 다수의 군상들로 작품으로 재현하였다. 또한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통해 쟁취하고자 하는 쾌락을 형형색색의 꽃가루와 폭죽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특히, 흑백 등 극명한 색상 대조를 통해 현대인들이 얻고자 하는 행복과 물질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로 치열하게 다투며 대립하는 군상의 모습과 이와는 다르게 표면적으로는 행복해 보이거나 즐거워 보일 수 있으나 다소 혼잡스러운 파티장의 꽃가루 같은 상징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타자들의 갈등과 대립을 작품으로 표현하여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제고해 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상기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본 논문은 크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히고 연구의 범위를 선정하였다. 2장 본론에서는 현대사회 속 대립과 갈등, 경쟁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이 장은 부주제로 ‘사회의 대립과 갈등’, ‘소통과 연대’, ‘작품 제작 및 설명’ 총 3절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3장인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언하였다.

II. 본 론

1. 사회의 대립과 갈등

갈등이론(conflict theory, 葛藤理論)에 따르면, 사회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개인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립과 경쟁, 갈등과 변화의 관계에 있다.¹⁾ 실제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지역, 계층, 세대 간 대립과 갈등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대립 상황은 치열한 경쟁 역시 야기하고 있다. 남녀, 보수와 진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그리고 좌파와 우파 등 각종 균열구조에 따라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놓고 서로 배려와 양보를 하지 않으며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의 기저에는 추악한 인간의 본능, 즉, 이기심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승차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택시업계’와 ‘승차 공유업계’ 간 대립을 들 수 있다. 택시업계 측은 카풀 서비스 등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승차공유’가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승차 공유업계는 승차공유 문화는 택시의 부족한 공급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일조하는 신산업이라고 강조, 이해관계가 다른 두 집단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각종 거짓과 진실공방이 난무하여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는 더욱 각박해지고 있다. 일례로, 2015년, 시위 진압용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얼마 지나지 않아 숨진 故 백남기²⁾씨의 사망원인을 놓고 오랜 기간 갑론을박이 있었다. 사람의 사망 사건을 두고도

1) 갈등이론 (conflict theory, 葛藤理論), 『doopedia』 .

2)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전남 보성의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1년 여간 혼수상태로 있다가 2016년 9월 25일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시사상식 사전)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적 논리와 이념의 잣대로 갈등하고 대립하였다.

이처럼 갈등을 만드는 중요한 요인은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이다. 우리가 겪는 많은 사회적 문제는 기득권층의 탄압과 착취에서 비롯하며, 사회의 각 구성원과 조직은 협동보다는 경쟁 관계에 놓여있다. 즉, 현대 사회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한 경쟁 시대라 할 수 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다 보면 한순간에 경쟁에서 뒤처지기 쉽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경쟁과 지배, 대립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살아가는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 공멸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여 치열한 경쟁과 갈등 행위를 당연시할 경우, 경쟁의 규칙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게 된다. 기회를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서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진실을 은폐하기도 하고, 그러한 부조리한 상황에 쉽게 동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극은 근본적으로 개인과 집단의 욕심과 욕망에서 비롯한다. 특히, 권력(power), 부(wealth), 명예(honor)를 향한 욕망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 추구하는 힘이자 수단이다. 이것들을 쟁취,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여 더 큰 힘과 수단을 획득하여야 한다. 약자를 짓밟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점점 치열해지는 갈등과 경쟁상황을 나타내는 다양한 말들도 쏟아지고 있는데, 사회의 강자와 약자 사이의 갈등을 대변하는 ‘갑질’, 부에 따른 자신의 계급을 수저로 빗댄 ‘수저계급론’, 부모에게 의존하는 젊은 세대들을 뜻하는 ‘캥거루족’, 점점 좁아지고 치열해지고 있는 취업 상황을 대변하는 ‘문송합니다’, ‘헬조선’, ‘N포세대’, ‘취업 9종 세트’ 등의 신

조어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취업 9종 세트’는 취업을 위해 쌓아야 하는 9가지 스펙을 뜻하는 말로, 치열해진 스펙경쟁 실태를 잘 보여준다. 기존의 7종 세트인 자격증, 인턴경력, 공모전 수상경력, 해외어학연수, 토익점수, 학점, 학벌에 더해, 사회봉사와 호감형 얼굴로 보여 지기 위한 성형수술까지 합쳐 총 9종이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취업 시장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극심한 취업난과 무한 취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발적 아싸’가 되는 대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자발적 아싸’란 자발적 아웃사이더를 줄인 신조어로, 어떤 사회나 집단에 어울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뜻한다. 많은 젊은이가 친구나 동료와의 친목 도모나 다양한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오직 취업만을 위해 공부하다 보니, 사회와 개인의 문제에 대한 건전한 대화의 장이나 캠퍼스의 낭만 등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지식의 요람, 진리의 전당이었던 대학은 이제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수단으로써만 여겨지고 있다.

노암 촘스키(Noam Chomsky)³⁾는 그의 저서,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에서 고대부터 이어져온 사회계급 분류가 형태만 계속 바뀔 뿐 그 틀은 변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바 있다. 고대 사회에서는 계급 분류의 도구가 육체적 힘이나 사냥 능력이었다면, 현재는 돈이 그 자리를 대체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의 논리가 삶의 논리를 대신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지배하고 있다. 이는 경제 논리가 사회의 다른 가치 — 예컨대 윤리, 인권, 자유 같은 — 에 무조건적으로 우선하고, 심지어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철학자.

2. 연대와 협동으로

현재 한국은 소수의 기득권자가 지배하는 승자독식의 사회로, 이른바 ‘20대 80 사회’ 또는 ‘10대 90 사회’로 불린다. 많은 사람이 기득권층에 들어가기 위해 극심한 경쟁을 벌인다. 이로 인해 인간성 소외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타자의 불행이 본인의 행복을 위한 전제가 되는 불편한 진실을 경험하고 있다. 사실 경쟁이란 개념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 경쟁의 어원은 라틴어인데, 실제 뜻은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즉 무언가 바람직하거나 공통적인 것을 성취하기 위해 더불어 노력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쟁이란 단어는 이러한 어원의 의미와 전혀 다르게 사용되어 상대방을 짓누르고 내치는 행위로 해석되고 있다. 상대방을 짓눌러야 나의 생존이 보장되는 현실은 자본주의 사회, 즉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하지만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을 위해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억압하는 경쟁 구도에서는 어느누구도 영원한 승자가 될 수 없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라는 공간에서 역설적으로 우리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다. 서점의 베스트셀러 코너나 네이버(NAVER) 같은 사이트의 인기 글들을 보면, 언제부터인지 자존감이나 마음치유법을 알려주는 책과 내용이 항상 상위권에 놓여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 피폐해지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병들었고, 개인의 자존감 회복이나 마음치유가 절실한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준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현존하는 대립이나 갈등, 그리고 경쟁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우선이며, 그 과정을 하나둘씩 짚고 나아가며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와 도 넘은 비방 대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대안

을 제시하며, 배려와 대화를 통해 갈등의 폭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서로를 인정하며 화합한다면 갈등이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 현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기득권층에 들어가야 한다는 왜곡된 열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욕심을 내려놓고 적대적 대립이 아닌 소통과 연대, 협동으로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극소수 상류층이 기득권을 독차지하고, 대다수 사람은 생존경쟁에 목을 매는 ‘사다리꼴 사회’가 아니라,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개성을 자유롭게 살리면서 평등하게 사는 ‘원탁형 사회’로 바뀌 나가야 한다.

연구자는 뉴스나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사회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립과 갈등, 분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부정적 감정의 내면화로 이어졌고, 불안하고 공허한 상태를 느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물리적인 삶의 질은 높아졌지만, 사람들 간의 소통이나 공감, 단결과 연대가 점차 사라지면서 정신적인 삶의 그것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만을 위하는 이기심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돌아볼 여유를 가지기 힘들어졌다. 단순히 국가 간 문제나 거대한 기업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시각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자는 현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대립이나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경쟁과 그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가치, 삶의 태도, 여유 등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치열한 대립과 승자독식이 만연하는 질서를 평등하고 자유로운 구조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비인간적이고 반생명적인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적이고 생명적이며, 평화적인 연대와 협동의 원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이를 이루어 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 간 대립과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타자와의 소통과 연대를 일상생활에서부터 하나씩 실천하면서 마음속의 사다리 질서를 걷어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3. 작품 제작 및 설명

본 작품은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상황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람이 뒤엉켜 싸우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고단하고 치열한 현대 사회 삶의 단면을 담아내고자 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여 이미지 안에서의 현장감과 긴장감을 주어 시각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양복 입은 남성들이 등장하는데, 양복은 ‘화이트칼라(white-collar)’로 대표되는 매우 신사적이고 격식을 차린 사회 기득권층을 상징한다. 나아가 이들은 어떤 특정한 한 집단만을 의미하지 않고,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양복은 또한 단순히 옷의 개념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을 억압하는 제도와 규범의 표상이다.

또 작품에서 축제에 쓰이는 꽃가루나 폭죽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폭죽과 꽃가루가 흩뿌려진 상황은 파티, 우리말로 잔치를 의미한다. 이 상황적 설정에는 질서와 무질서 두 가지 모습이 혼재되어 있다. 사람들은 형식적인 엄격한 질서, 그리고 계층적 상하가 없는 무질서,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격의 없이 하나가 되고, 이 과정에서 서로 간 마음의 벽을 허문다. 즉, 먹고, 마시고, 노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풀어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파티라는 상황적 설정은 공동체 의식과 상호작용이라는 인간의 사

회적인 측면을 대변한다. 즉, 사회관계를 상징화하는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표상하는 것이다. 작품 속의 군중이 단순히 파티 상황을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간 마음을 주고받는 의식을 행하며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파티는 각박한 경쟁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삶의 가치, 태도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파티라는 상황적 설정을 통해 삶의 여유 없이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위안을 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고된 삶에서 여유를 되찾고, 심적인 긴장에서 벗어나 힘겨운 일상을 극복하며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 파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사람들은 동질감을 느끼고, 내 집단에 대한 애착 역시 강화된다. 즉, 구성원 간의 단결과 단합, 협동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된다.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먼저 붓의 터치 행위를 반복하며 인물들의 이미지를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었다. 반복적인 선을 중첩 시키는 작업은 작품 과정에 몰입하게 되는 지점이었다. 이와는 다르게 폭죽이나 꽃가루들은 평면적으로 채색했는데, 이는 입체적인 인물표현과 단순한 폭죽 꽃가루가 표현적, 상황적 어색함을 만드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함이다. 처음에는 두 상황이 같은 공간 안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물과 꽃가루 간의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



【작품 1】 조한진, <攻城戰 I>, 145.5cm x 112.1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1】 조한진, <攻城戰 I >

145.5cm x 112.1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1】은 본인이 TV 뉴스나 인터넷 신문기사에서 접했던 실제 일어났던 상황들을 가지고 이미지 작업을 했다. 그 중 본 작품은 일본국회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이러한 정치적 양상을 빚대어 현대 사회 속 대립하는 우리의 자화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대립하는 두 집단 간 인물들의 표정이나 손짓, 몸짓 등을 달리해 작품 속 현장감과 긴장감을 더욱 잘 느끼게 표현 했으며, 이를 통해 리얼리티를 강조했다.

국가는 사회적 목표와 자국민의 니즈를 제도를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실천하고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자본과 경제의 이동, 얽혀있는 국제관계, 계층, 인종 차별 등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 문제들로 인하여,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생기며,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집단 혹은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작품 2】 조한진, <攻城戦 II>, 145.5cm x 112.1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2】 조한진, <攻城戰 II>

145.5cm x 112.1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2】는 우리나라 국희싸움이 배경이 된다. 앞 작품과 마찬가지로 집단간의 대립을 표현하였는데, 인물들의 사실적 묘사에 의하여 싸우고 대립하는 상황을 일순간 정지시켜 강조해 표현함으로써 생생한 현장감과 상황의 긴장감을 표현했다. 주관을 극도로 배제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마치 사진처럼 극명한 화면을 구성했다. 다른 작품들과 달리 꽃가루나 폭죽처럼 아무런 장치, 장식 없이 현장 그대로 인물들의 표정과 상황에 집중하였으며, 배경은 인물이 그려져 있는 부분과 그려져 있지 않은 빈 공간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다.

이 여백은 군상들의 몸부림치는 그들의 상황에 좀 더 집중하게 만들며, 비워둔 공간은 보는 이로 하여금 상상을 하게 만든다. 그 빈 부분은 특정 공간이 될 수도 있으며 어떠한 색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즉, 무한한 상상의 공간이다. 싸움의 주체가 되는 인물의 이마를 채색하지 않고 비워 두었는데, 다 채워진 인물표현 중 그 부분만 비워둠으로써 강조의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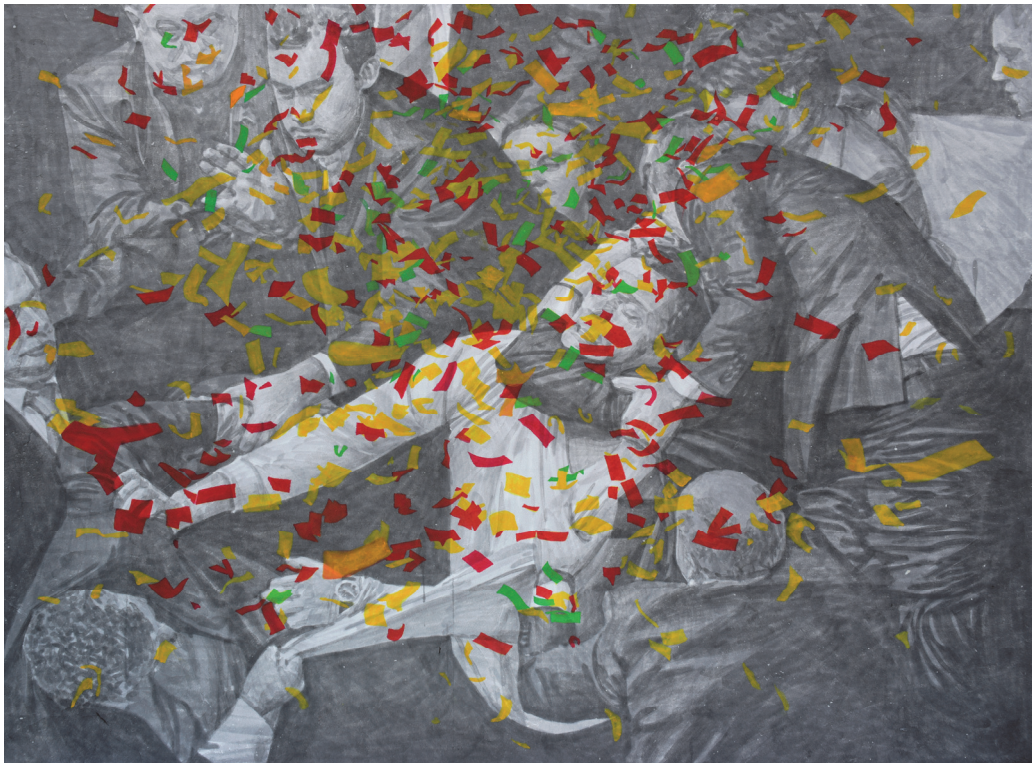
【작품 3】 조한진, <攻城戰 III>, 각 116.8cm x 91.0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3】 조한진, <攻城戰 III>

각 116.8cm x 91.0cm, 장지에 채색, 2018

본 작품은 우크라이나 국회싸움의 한 장면을 포착해 제작하였다. 법안을 논의하던 중 난투극을 벌이는 모습이다. 자신들의 성과 요새 즉 각, 정당의 이익이나 이념을 지키기 위해 서로 싸우는 현대의 국회 공성전이다. 하나의 작품을 반으로 나눠 각각 제작을 하였는데, 작품 프레임을 두 개로 나눠놓아 대립과 갈등을 이미지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집단의 보이지 않는 경쟁, 대립, 갈등상황을 보다 효과적으로 느끼기 위한 장치이다. 또 군중을 사선구도로 배치해 상황의 불안감과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은색 꽃가루는 은분이라는 분체를 사용해 채색하였으며, 본 작품에서의 은색 꽃가루는 인간의 욕망과 돈을 의미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부풀려지고 왜곡되는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인간의 욕망이 드러나고, 그 욕망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모로 가도 성과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게 하고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사고방식을 갖게 한다. 그렇다 보니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부를 착취하면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욕심이 생기다 보니 사람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이 생긴다. 그 가운데에서도 누군가 낙오되거나 피해를 보는 것은 아랑곳 않게 되는 왜곡이 생기는 것은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작품 4】 조한진, <攻城戰IV >, 각 116.8cm x 91.0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4】 조한진, <攻城戰Ⅳ>

각 116.8cm x 91.0cm, 장지에 채색, 2018

본 작품은 【작품 3】 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국회 싸움을 배경으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 작품에서는 빨강, 노랑, 연두 세 가지 색으로 채색하였는데, 빨간색의 꽃가루는 격렬하게 싸우는 현장에서 마치 피를 튀기는 듯한 장면을 은유적으로 연출 했다. 이는 상황의 현장감을 더욱 느끼게 하고 흑백과 컬러의 극명한대조가 작품의 생동감을 불어 넣는다. 의도적으로 꽃가루를 증척시켜 인물들의 표정을 가렸으며, 이를 통해 표정보다는 격렬한 싸움속 인물들의 동세에 집중하기 위함이다.



【작품 5】 조한진, <攻城戰VI >, 130.3cm x 97.0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5】 조한진, <攻城戰 VI >

130.3cm x 97.0cm, 장지에 채색, 2018

때로 권력투쟁은 국력소모로 이어져 국가의 존망까지 위태롭게 할 판이다. 생각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을 잡으면 권력 다툼하라, 노선 투쟁하라 바쁘다. 내부 권력 다툼에 인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강하게 쏟아내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자기들만의 권력 다툼으로 여전히 보란 듯 치고 박고 있다. 한편,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없다면 자기가 쌓은 권력과 명예와 재물들이 결과적으로 사회와 나라와 세계의 파멸을 불러오게 되고 때로는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존재하게 된다.

핑크색, 청록색 등 강렬한 색채는 흑백의 이미지와 더욱 대비되고 이러한 현실에 진정한 행복을 그들에게 찾아 주고자 하는 축복의 의미와 동시에 경쟁하는 인간의 사욕을 비웃는 장치이다. 파티 꽃가루와 테이프는 세속에서의 명예와 영광을 한껏 드높이고 있다. 이는 인간 쾌락의 상징이며 서로의 갈등이 해소되고 서로 원만한 조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본인의 염원이다.



【작품 6】 조한진, <攻城戰 V>, 116.8cm x 91.0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7】 조한진, <攻城戦Ⅶ>, 130.3cm x 97.0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6】 조한진, <攻城戰Ⅴ>

116.8cm x 91.0cm, 장지에 채색, 2018

【작품 7】 조한진, <攻城戰Ⅶ>

130.3cm x 97.0cm, 장지에 채색, 2018

본인의 작품은 장지, 즉 한지를 사용하였다, 한지는 다른 종이나 캔버스 천과 달리 튼튼하고, 먹을 이용해서 채색을 했을 때 먹의 번짐이 자연스럽게 붓의 터치를 여러 번 중첩시켰을 때 농담이 잘 표현된다. 인물들 간의 대립상황을 흑백으로 표현한 이유는 경쟁사회를 일종의 비인간적이고 생명력 없는 삶이라고 규정해 생동감 없는 차가운 느낌의 흑백으로만 표현하였다. 흑백의 현실의 풍경은 무미건조한 현대의 사회상을 보여준다. 현대사회의 인간이 가지는 일상의 단면인 셈이다.

실제 다투는 대립의 한 장면을 가감 없이 표현해 현실의 리얼리티를 느끼게 한다. 여러 군상들의 대립과 싸우는 해동으로 그들의 상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신사적인 이미지의 상징인 양복을 입고 대립하는 장면은 멋지고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가 아닌 표정이 더욱 일그러지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표현했다. 이는 진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물들의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강조해 회화화하였다. 개인 혹은 집단들의 사회적 권위와 지위 더 나아가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좀 더 자유로워 졌으면 하는 본인의 소망과 전통과 현대, 진보와 보수의 대립 속에서 유연해지는 그들을 기대하며 작품을 제작하였다.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갈등과 대립, 집단 혹은 개인 간의 지나친 경쟁과 그로 인한 문제점, 인간의 욕심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연구자의 작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오늘날 갈등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문제의 주요 원인이다. 성별 대립, 각종 정치적 현안을 두고 벌이는 여야 대립, 생존권에 따른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등 서로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온갖 대립과 갈등이 난무한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사회 곳곳에서 극도의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갈등의 논리를 자연스러운 삶의 논리인 것 마냥, 굳게 받아들이며 이를 스스로 끊임없이 내면화하고 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서로 싸우느라 행복을 돌이켜볼 여유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대립, 그로 인한 갈등과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 되었지만 한국 사회의 그것에는 욕심과 이기심이 그 기저에 훨씬 더 만연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연구자는 현 사회를 지배하는 지나친 대립 및 갈등 상황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그 굴레를 넘어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과 대안이 무엇인지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시대를 살아가는 연구자 역시도 갈등 사회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구성원 간 원만한 조화를 이루기를 바라는 기대를 담아 희화화된 표정과 상황, 그리고 상징적인 이미지가 결합된 작품을 제작하였다. 세계 곳곳에서 실제 벌어지는 갈등 상황 속 군상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 위에 형색색의 흩뿌려진 폭죽과 꽃가루를 그려 넣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현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개인의 투쟁, 대다수 사람이 겪었거나 앞으로 겪을 집단 혹은 개인 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자 하였다. 광화문 광장 앞은 항상 이해단체들의 집회로 떠들썩하다.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부터, 성소수자단체 집회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집회가 열린다. 심지어 국회 주변을 점거하고, 청와대로 행진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심화되는 이유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각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포용하고 이해하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는 것과 더불어 경쟁과 대립보다 연대와 협력을 하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이 좌절하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더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화합하고 뭉쳐야 한다.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과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안주하며 자신들의 이익만 내세우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 연대와 화합을 통해 서로 존중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일구어 나가야 한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앞서 밝혔듯이 사회제도의 개선이나 복지가 기본적으로 수반되어야 하지만, 그전에 개개인이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관습이나 제도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왜곡되고 파괴된 현실을 깨닫고, 청빈, 절제, 공생공락, 공동체, 우정 등을 강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그간 잃어버린 인간 내면의 본성을 회복함으로써 희망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과거의 상실된 내면을 회복하여야만 올바른 미래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

작업 과정에서 연구자 역시 한국 사회 내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에 대한 선입견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 사회에 길들여져

4) 강수돌, 위의 책, p.218.

있던 연구자의 시각이나 태도를 짧은 기간에 바꾸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지나친 대립과 그로 인한 갈등을 당연시하고 이것밖에 삶의 방도가 없다며 갈등 논리를 삶의 논리로 내면화하였던 지난날을 반성할 수 있었다. 단기간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긴 힘들겠지만, 개인과 집단 간의 지나친 대립 문제를 화두로 삼은 연구자의 작업이 현재 한국 사회,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갈등 문제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연구자는 작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 주제에 관하여 보는 이들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얻고자 하며, 앞으로 연구자만의 고유한 예술적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 내용을 보다 확장하는 방향으로 작품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강수들, 『팔꿈치 사회』, 갈라파고스, 2013.
- 가오싱젠, 『창작에 대하여 論創作』, 돌베게, 2013.
- 이진경, 『문화 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07.
- 앤서니 기든스, 『자본주의와 현대사회』, 한길사, 2008.
- 한병철, 『피로사회』, 문학과 지성사, 2012.

학위논문

- 오찬호, 『불안의 시대, 자기계발 하는 20대 대학생들의 생존전략』,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2.
- 민상천, 『무한 경쟁이 야기한 인간 소외 현상에 대한 사회 교리적 연구』, 대전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8.
- 박혜정, 『학업 스트레스, 통제소재, 우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 :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 조민아, 『집단사회구조를 통해 본 군상 표현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2015.
- 최을, 『한국사회 양극화에 대한 계급론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a large group of people through modern competitive social structure

- With a main focus on the Author's Work -

JO, Han jin
Dept. of Oriental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oday, our society is experiencing deepening conflicts and confrontation between individuals or groups as competition intensifies. In order to survive in a society where the logic of survival of the fittest is prevailing, we live in competition with others every day and accept it as an indispensable act.

Competition in capitalist society can be seen as a sort of problematic product that the members of society unknowingly accept by way of the empirical evidence that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has been achieved by mankind. This competition brings us material abundance as the source of power, but the fear of defeat in competition, the reward mentality, selfishness, and a winner-takes-all culture arise from it, causing excessive confrontation and conflict, increasing the serious mental damage of the members of society.

In other words, there is a fierce competition to avoid being deprived of

one's interests behind economic richness, and the conflicts that arise from them appear as violent, greedy, and selfish group conflicts in the corner of a party venue fireworks and flower peddles are flying around.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dynamically expressing the contradictions and conflicting figures of the public in order to avoid being caught in the contemporary competitive society. Especially, in the confrontation and conflict caused by greed and selfishness to gain profit from society and group, the images of modern people struggling to gain an advantage over others haven't be portrayed in the artwork.

In addition, this study observed how these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affect each other and how our views and attitudes toward these dark, realistic problems are shaped.

To emphasize, this study sought to draw a symbolic image of a modern man who is living in the present age in which many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are caused by the greed and selfishness of individuals and groups. It sought to sublimate the self-portrait of our society of confrontations and conflicts by using various expressions and the symbolism of pollen for contemporary people living togethe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vey the meaning of symbolic expressions paradoxically, although the motif is a realistic image in the expressive aspect.